

어려한 역사의 이름으로  
『16세 어린 나의 일본에  
오지에 끌려가 일본군  
로부터『정신대』 국내  
증인 이 처를 나타났다.  
이렇게 살았는데  
그런 일이 없다니 말이 텁  
니까.』  
50년째 가슴에 물

## 16세 때 수난... 日 사과·배상 마땅

# 挺身隊 죄 내가 증명한다!

첫 국내증인 金學順(한국)



◇ 金學順씨

문제 대책협의회 사무실에  
서 자신이 겪은 조선 여자  
『정신대』의 실상을 고발  
했다.  
『1940년 불, 중·일전 미 매춘행위를 하고  
있던 일본군을 상대로 이  
풀포에 절제 달아났던  
『사다코』라 불리는 17  
세의 한국 여성 3명 4명  
가족을 모두 잃고 6·25 전후  
해 귀국했으나 6·25 전후  
기운도 25도를 올드는 「열  
대야」(熱帶夜) 현상을 동반  
한 무더위가 달새째 계속  
되었던 탓에 머물고 있던  
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 
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 
로 뛰어난 백산백성을 중심으로  
한 무더위가 달새째 계속  
되었다. 교육부는 당초 이번  
합의각서에 6·25 북침설을  
비롯한 양국 교과서에 광복  
기념사업도 포함시킬 예정이

그는 몇 번이나 불러와 별을 밟기도 했다.  
『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 
정신대 문제를 밝혀내 일  
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 
배상을 빌게 해달라』고 요  
구하는 그는『거기에 일본  
가요가 버젓이 흘러나오는  
현실에 분노를 느낀다』고  
밝혔다. (李善珠기자)

# 韓·蘇, 교육·학술교류 협정



◇ 밤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날씨가 달새째 계속되자 15일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지구 고수부지에는 밤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과 차량들이 크게 몰렸다.

<鄭良均기자>

20 21 일주

熱帶夜다

## 19일 兩國 합의 각서 체결

尹장관 내일 蘇에

면

한국과 소련간의 공식적  
인 교육교류가 시작된다.

尹

장관은 소

학술교류 사업에 관한  
의학서를 체결한다고  
교육부가 밝혔다.

15 합

학술교류 사업에 관한  
의학서를 체결한다고  
교육부가 밝혔다.

교육부는 이 합의각서가

교수교학, 유학생교류, 학

술정보교류 등 제반 교육  
분야에 대해 양국이  
와 책임을 공유하는 등 강  
력한 유대를 위해 체결하  
는 것으로 현재 미국 프랑  
스 등 소주의 국가들과 만  
맺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  
했다. 교육부는 당초 이번  
합의각서에 6·25 북침설을  
비롯한 양국 교과서에 광복  
기념사업도 포함시킬 예정이

